

2015. 2.

2015년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남미지역 선진기관 벤치마킹 해외연수 결과보고 (2015. 1. 15 ~ 25 /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2015년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남미지역 선진기관 벤치마킹 해외연수 결과보고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 KOTRA 한국무역관, 교민기업 방문 및 국립공원운영, 관광자원 관리 실태 비교시찰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실시한 해외 연수임

I 연수 개요

연 수 국 :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3개국)

연수기간 : 2015. 1. 15(목)~1. 25(일), 7박 11일간

연 수 단 : 총 19명

○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16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도의회 담당직원 3명

- 경북(김재한), 부산(김종규), 인천(정종영)

연수내용

- 페루의 공원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및 생태공간 활용방안 벤치마킹
- Kotra 부에노스 아이레스 무역관 방문 및 한·아르헨티나 통상교류 현황 청취
- 부에노스 아이레스 진출 교민기업 방문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우수사례 현장 견학
-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국립공원의 운영 및 안전관리 현황과 자연유산 보존실태 견학

Ⅱ

연수자 명단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수행공무원 : 19명

연번	소 속	성 명(영문)	직 위	비 고
1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	최 웅 식 CHOI/WUNG SHIK		
2	부산시의회운영위원장	전 봉 민 JEON/ BONG MIN	협의회장	
3	대구시의회운영위원장	최 길 영 CHOI/KIL YOUNG	수석부회장	
4	인천시의회운영위원장	오 흥 철 OH/HEUNG CHUL	감사	
5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심 철 의 SHIM/CHUL EUI	부회장	
6	대전시의회운영위원장	김 경 훈 KIM/KYOUNG HUN	부회장	
7	세종시의회운영위원장	서 금 택 SEO/GUM TAIC	감사	
8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	오 완 석 OH/WAN SEOK		
9	강원도의회운영위원장	임 남 규 LIM/NAM KYU	부회장	
10	충북도의회운영위원장	박 한 범 PARK/HAN BUEM		
11	충남도의회운영위원장	조 길 행 CHO/KIL HEANG		
12	전북도의회운영위원장	백 경 태 BAIK/KYONG TAE		
13	전남도의회운영위원장	송 형 곤 SONG/HYEONG GON		
14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	홍 진 규 HONG/JIN GYU	사무총장	
15	경남도의회운영위원장	성 경 호 SEUNG/KYUNG HO		
16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이 선 화 LEE/SUN HWA	정책위의장	
17	경 북 도 의 회	김 재 한 KIM/JAE HAN	수행공무원	
18	부 산 시 의 회	김 종 규 KIM/JONG GYU	"	
19	인 천 시 의 회	정 종 영 JUNG/JONG YOUNG	"	

III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1. 15(목) <1일차>	인 천 달라스	AA280	14:00 15:35 17:15	· 인천공항 3층집결(출발 18시) · 달라스공항 도착(비행소요 13시간) · 달라스 국제공항 출발(비행소요 7시간)
1. 16(금) <2일차>	리 마	LA2021 전용차	01:14 10:45 12:05	· 리마 도착 후 휴식 · 리마 출발 · 꾸스꼬 도착
1. 17(토) <3일차>	우루밤바 마추피추 우루밤바	전용차	전 일	· 페루 잉카문명 역사유적지 관리실태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사례 분석
1. 18(일) <4일차>	쿠스코 리 마	LA2022 전용차 LA2427	09:55 11:20	· 쿠스코 출발(비행소요시간 2시간) · 리마 도착 · 리마 출발(비행소요시간 4시간 30분)
1. 19(월) <5일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용차	06:25 10:00	·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 · 현지일정
1. 20(화) <6일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과 주	LA4028 전용차	10:00 13:20 15:10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방문 · 현지 진출 한국교민 기업체 방문 · 부에노스아이레스 출발(비행소요시간 1시간 50분) · 이과주 도착
1. 21(수) <7일차>	이 과 주	전용차	전 일	· 수력발전소 이따이쁘댐 관리공단 방문 - 수자원 관리 현황 청취 및 견학
1. 22(목) <8일차>	이 과 주 리 오 데 자네이로	전용차 JJ3189	10:00 15:16	· 이과주 국립공원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와 자연유산 보존현장 견학 · 이동 (이과주→리오데자네이로, 2시간)
1. 23(금) <9일차>	리 오 데 자네이로	전용차 JJ3687 AA962	09:00 19:37 23:40	· 산악열차를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사례 · 이동(리오데자네이로→상파울로, 1시간 20분) · 상파울로 출발
1. 24(토) <10일차>	달 라 스		06:05 10:30	· 달라스 도착 · 달라스 국제공항 출발
1. 25(일) <11일차>			16:00	· 인천국제공항 도착

IV

연 수 내 용

1 페루(Republica del Peru)



일반개황

- 국명 : 페루공화국
- 수도 : 리마(인구 약 850백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
- 면적 : 129만km²(한반도의 약 6배)
- 인구 : 약3,014만(2014년)
- 언어 : 스페인어(공용어), 케추아어, 아이미라어 등
- 종교 : 카톨릭(90%이상), 잉카무속 등
- 화폐 : 솔(SOLES / 1솔=327원)
- 시차 : 한국보다 14시간 늦음
- 주요산업 : 철, 동, 아연 등 광물자원, 수산물 등

기 후

동절기는 5월~11월 , 하절기는 12월~4월 해안지대는 온난다습 산악지대는 우기 (11~3월) 와 건기 (4월~10월)로 밀림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고온다습으로 구분한다.

리마지역은 연평균 22도이며, 동계기간(5월~8월)은 짙은 안개로 햇빛을 볼 수 없다.

페루의 역사

안데스 산지, 인디오의 여인들, 잉카의 유적, 불가사의한 지상그림, 아마존 밀림지대 등 , 남미 이미지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페루이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브라질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페루 국토의 60%

가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대이다. 아마존강은 페루의 안데스를 발원으로 하여 시작한다. 예전에 남미의 최대 제국을 쌓았던 잉카를 비롯하여 페루에는 기원전부터 몇 개의 고대 문명이 꽃피었다가 사라졌다. 프레 잉카의 유적 위에 다시 잉카의 건축물이 세워지고 또 그 위에 식민지 시대의 건물이 서 있다.

고대의 수준 높은 문명을 일으켰던 남미 최대의 잉카제국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 페루는 약 3,000년 전에 현재 우아라즈(Huaratz)지역인 북부 안데스의 차빈 문화를 기초로 모티카, 나스카, 티무라 문화가 이어졌다. 11세기 말 중부 안데스 지역에서 발원한 잉카족은 12세기 초반에는 수도 꾸스꼬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에 걸쳐 약 5000km 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잉카문명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1532년에 시작된 스페인의 식민지배는 1821년 독립 지도자인 산마르틴 장군에 의해 독립을 맞기까지 지속되며, 식민지배 기간 동안 잉카문명이 만들어낸 수많은 찬란한 문화재들은 황폐화 되었다.

페루의 정치, 경제

페루는 중남미에서 유서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3세기부터 쿠스꼬를 중심으로 잉카제국의 문화가 꽃피었고 1544년 스페인이 리마에 부왕청을 개설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리마의 시가지가 과거 도시를 중심으로 인디오 및 혼혈인종들이 신산한 삶을 살고 있는 구시가지와 12%의 백인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는 신시가지와의 대비되는 모습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빈부의 격차, 공식사회에 만연된 부패, 그리고 빈민층들의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 등으로 찬란하였던 1950년대의 경제상황을 정점으로 아직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계 출신인 후지모리 대통령이 집권 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중산층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외신을 통하여 알고 있는 후지모리 대통령의 인상은 부패와 정보정치로 썩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미국중심의 미국의 대 아메리카 대륙 정책에 후지모리가 반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고 말한다. 현재의 원주민 대통령은 미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후지모리에 대하여서는 미국에 위치한 수많은 국제 통신사, 언론사들이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8년 혁명으로 군정이 들어섰고 많은 실정으로 인해 1980년 총 선거를 거쳐 민정으로 바뀌었다. 이후 1985년 Alan Gracia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후지모리 정권은 개혁정치를 실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긴급 경제개혁 조치와 대 테러 진압으로 경제성장(94년 12%), 인플레이션 억제 (94년 15.4%) 및 치안회복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는 3선 출마에 대한 위헌시비와 부정선거 의혹, 정보정치를 반영하는 비디오 공개로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된다. 이후 총선(2001.4.8.)을 실시하여 Toleo 대통령이 원주민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과의 교역은 우리가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석유류 등을 수출하고 있고 광물자원과 원양어업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207백만불이고 수입은 140 만불이어서 2000년말 현재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차 수출이 붐을 이루어 페루의 택시의 80%가 이런 루트를 이용해 수입한 티코 택시이다.

지 리

전체 면적은 1,285,220km²이며 멕시코 면적의 3분의 2 정도이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가 북쪽에 있고 브라질이 동쪽, 남동쪽으로 볼리비아, 남쪽으로는 칠레와 접하고,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다.

안데스 산맥이 태평양 해안을 따라 뻗어 페루 전역을 3등분한다.

서쪽에 있는 해안 지방(costa)은 좁은 평원으로 계절에 따라 강이 생겨서 형성된 계곡을 제외하면 대개 건조한 곳이다. 고원 지방(sierra)은 안데스 산맥의 여러 주로서, 알티플라노(altiplano) 고원이 있고 페루에서 가장 높은 6,768m의 우아스카란(Huascarán) 봉우리가 솟아 있다

세번째로 정글 지방(selva)은 동쪽으로 펼쳐진 아마존 강의 열대우림으로 뒤덮힌 넓은 평원이다.

이 지역은 페루 국토 전체의 60%를 차지하며,(7천만 헥타르) 브라질, 콩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 네번째로 열대 우림이 넓은 나라이다.

페루의 강은 대부분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나와 주로 세 유역 가운데 한 곳으로 흐른다. 태평양으로 이르는 강은 짧고 경사가 급하며, 물이 간헐적으로 흐른다. 이보다 더 긴 아마존 강의 지류들은 유량도 풍부하며, 산지 지방을 지나면 경사도 낮아진다.

티티카카 호수로 흘러가는 강도 있는데 대개 수량은 많지만 길이가 짧다.

페루에서 긴 강은 우카얄리 강, 마라논 강(Maranon), 푸투마요 강(Putumayo), 야바리 강(Yavari), 우아야가 강(Huallaga), 우루밤바 강(Urubamba), 만타로 강(Mantaro), 아마존 강 등이 있다.

산 업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동, 금, 주석, 철 등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산출되고 있다.

농업은 레모과 라인, 옥수수, 목화, 등이 대표적 작물이며 어업으로는 정어리를 가공한 생선기름과 비료가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 페루의 문화 · 관광정책 및 시사점 】

페루는 광활한 대륙으로 넓은 평야와 초원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이자 관광산업을 통한 이익으로 국가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정치적인 문제와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 관료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경제와 치안, 관광여건은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페루가 가지고 있는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실태 및 문제점

가. 문화재에 대한 관리 미비

페루하면 고대 잉카문화의 유적지 쿠스코와 마추피추를 가장 상징적인 곳으로 꼽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광지란 명성과는 달리 마추피추를 가기위한 중간 기착지 우루밤바의 유적들에서는 다르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장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마추피추는 입장권을 받아 관광객의 입장을 살필 장치라도 있었으나 우루밤바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마추피추의 경우에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를 받고 있으나 우선 마추피추 정상으로 오르는 수많은 S자 도로는 거의 안전가드레일이나 축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천만하며 수많은 관광객을 실은 중형 버스들은 흙먼지를 날리며 울퉁불퉁한 돌길을 사정없이 달려간다. 특히 일부 유적(돌담)들은 오랜 시간 차량들의 진동과 관람객들의 무게로 인해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유네스코와 페루 관광청의 대처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나. 관광산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 부족

우루밤바에서 1박을 보내고 이른 아침 마추피추행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듯 그 열차는 마치 우리나라의 5,60년대에나 다녔을 법한 무척이나 열악한 것이었다. 협곡을 따라 과거 영국에서 철도 부설을 한 이래 제대로 된 투자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좁은 선로를 통해 심하게 흔들리며 달리는 열차의 안전성은 매우 열악해 보였고 열차의 끝 좌석 쪽의 창문은 열차의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을 정도였다. 또한 페루 방문 중에 세계적인 유적지에 관광안내를 위한 information desk나 유적지를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에서는 이나라 공용어인 스페인어 외에는 언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열악한 관광 인프라로 지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지원 활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특히 페루의 경우에는 고대 잉카의 유적이 널려 있고 최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는 쿠스코와 마추피추는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전세계의 여행객들을 모여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마추피추를 방문하였을 때는 그렇게 많은 여행객들이 있진 않았지만, 현지가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얼마 전 발생한 미국테러 사건으로 인해 최근 여행객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예전 같았으면 여행객들이 발디딜 틈없이 붐빈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피추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유럽 및 남미, 그리고 미국 등지의 여러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은 모두 마추피추의 명성을 높이 사고 있었다. 페루의 경우, 그다지 관광홍보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명성에 의해 많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종묘, 석굴암 등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의 한 획기적인 계기를 가진 바 있다. 아직은 우리의 이런 유산들이 마추피추의 명성을 따르지 못한 상태이지만, 만약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도 페루의 마추피추의 고산도시가 가지는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얻게 된다면 한국의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가져오는 그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UNESCO라는 국제적 기구의 국제적 지원의 십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해외여행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나. 지역고유 특산물의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이번 페루여행에서 접하게 된 것 중 알파카에 대한 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파카는 페루의 고산지대에 사는 산양으로서 이 알파카의 털로 짠 스웨터, 머플러 등은 현재 페루의 주요 특산품으로 전세계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알파카의 털로 만든 여러 의류제품들이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페루의 주요 관광 상품화가 되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알파카는 특히 쿠스코 지역에서도 유명한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발 3,400m 의 고산지역에서 그러한 알파카 등의 동물들을 기르고 이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페루라는 국가의 고산문화의 고유성을 더해주고 있는 듯했다.

다. 한국 문화산업운영과 관련한 시사점

잉카제국의 신비롭고 웅장한 문화유산, 스페인 식민시대 이후의 유럽풍 문화유산을 보유한 페루는 관광대국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 후지모리 정권이전까지의 정치적 불안으로 관광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남미여행권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9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점점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가게 되었다.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사회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정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페루 못지않게 독창적 문화유산을 가진 한국의 경우 페루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관광대국화의 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 관광자원인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루의 많은 화재들이 보존되지 못

하고 방치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속에서 보전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계속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이 어려움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객의 유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광자원 못지않게 관광의 편의성이라 할 것이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의 독창성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를 최대한 홍보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기본 논리에 입각 우리의 독창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화.관광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페루 관광인프라 체험

궤리관차(태양의 신전-쿠스코)



산토 도밍고 성당이라고도 한다
잉카의 슬픔이 담긴 건물로 본래
잉카인의 가장 중요한 태양의 신전
'궤리관차' 건물인데 기초부분만
남기고 스페인인들이 성당을 지은
건물

삭사이우아망(쿠스코)



거석을 3층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요새 겸 신전, 스페인 침략자들과
마지막 전투를 나눈 곳이기도 하다.
사용한 돌은 근교의 것뿐만 아니
라 멀리 올란타이 탐보에서도 운
반해와 하루에 3만명을 동원하여
약 80년이 걸렸다고 한다.

마추피추



해발 2,280m에 위치하는 남미 최
고의 잉카 유적지로, 사방이 절벽
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16세기 잉카 저항의 본거지였던
이곳은 전설 속에 사라졌다가
1911년 미국의 역사가 히람빙엄이
발견할 때까지 신비 속에서 살아
왔다.

■ 미라플로레스 해변



미라플로레스는 신흥도시지역으로 리마에서 가장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소비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해변은 모래가 아닌 자갈로 되어있고 엄청나게 긴 해변을 가져 발전가능성이 많다.

■ 대성당, 광장



17세기와 21세기가 묘하게 어루러져 있는 대성당과 그 주변 대통령궁이 있는 광장이 있는데 페루는 광장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으로 이 광장에서 많은 문화적 교류 및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 마추피추행 협곡열차



쿠스코에서는 마추피추로 가는 차가 없다 꼭 열차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아마존의 눈썹”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좁은 선로 위를 뒤통거리는 열차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2 아르헨티나(Argentina)



■ 일반개황

-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
- 면적 : 2,579,221 km² (한반도의 12.6배)
- 인구 : 약 4,302만명(2014년)
 - ※ 유럽계 백인 약 95%, 메스티소 4.5%, 원주민0.3%
- 행정구역 : 1개 연방수도와 23개 주정부로 구성
- 주요도시 :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바릴로체
- 종교 : 카톨릭(92%)
- 정치
 - 대통령중심제와 상·하양원제,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을 소유하며 주의회,주지사 선출
 - 대통령, 부통령은 가톨릭신자 출신중 선거
- 언어 : 스페인어
- 화폐 : 페소(Peso / 1페소=128원)

■ 기 후

북부 - 아열대 , 중부 - 온대 , 남부 - 한대 (남극)
우기 (10~3월) , 건기 (4~9월)

■ 문 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의 하나인 떼아뜨로 콜론(Teatro Colon)을 비롯, 오페라, 발레, 연극, 영화, 클래식 음악, 미술 전시 등 200여 개가 넘는 중남미 최대의 문화공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민속춤은 '까르나발리토(carnavalito)' '삼바(zamba)' '가또(gato)' 등이있는데 특히 '탱고(tango)'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다.

또한 프로축구 리그인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시온은 세계 5대 축구 리그 중 하나에 꼽히고 있다.

배구와 농구 역시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로써, 농구는 2004년 하계 올림픽에서 우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미국을 완파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사 회

아르헨티나는 탱고와 목축으로 유명하며 교육과 문화 수준은 남아메리카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의 문화 수준과 대학을 비롯한 교육 시설은 상당히 충실하다. 다만 문화는 이 지역의 원주민 인디오가 볼 만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이식된 유럽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상류 계층에서는 프랑스 풍이 유행했다.

반면 중·하류계 층에서는 국민의 최대수를 차지하는 이탈리아계 이민과 그 자손을 통해 전파된 이탈리아 문화가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렸다. 또한 식민지시대 이후 스페인 문화의 토대 위에 생활양식, 관습, 특히 식생활, 언어,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정치, 경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미국 문명도 침투되고 있으나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가장 교육이 진보한 나라이며 문맹률은 3%에 불과하다. 교육제도는 7년제의 초등 교육, 5년제의 중등 교육과 4~6년제의 대학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7년간 무료이며 중등 교육(5년), 대학 교육(5~6년)도 무료이다.

■ 정 치

정치는 공화제를 채용하고 삼권분립이며, 국민 투표에 의한 4년 임기의 대통령이 중심이다. 정·부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태생의 가톨릭교도에 한한다. 상·하 양원제로서, 1912년부터 보통 선거제가 실시되고 있다.

전국은 23개의 주와 1연방구로 이루어지는데, 각 주는 주의회를 가지며, 주지사를 선거한다. 2차 대전 후의 후안 페론이 집권한 이후 쿠데타나 정권 교체가 심하지만 외교 방침은 미국과의 협조가 기본이 되고 있다.

병역은 포클랜드 전쟁이후 모병제를 택하고 있고 총 병력은 약 6만 7,300명이며,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 중 가장 근대화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 지 리

남미 대륙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다. 국토면적이 2,791,810km²이며, 말비나스, 남대서양과 남극의 섬까지 포함하면 3,761,274Km에 이르는 중남미 대륙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넓은 나라이다.

남북의 길이는 3,800Km, 동서의 폭은 1,425km이다. 북부 접경국으로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북동부는 브라질, 우루과이, 동남부는 대서양과 서부는 칠레와 접하고 있다.

■ 주요역사

- 1810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임시정부 수립
- 1816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수도로 하는 중앙집권적 공화국의 성립을 선언.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통일이 달성
- 1816~70 파라과이와의 전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림.
- 1982 슬로바키아 민주세력의 주도하에 공산당 통치 종식
- 201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며 독립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방문

□ 방문 개요

- ◆ 방문일시 : 2015. 1. 19.(월) 11:00
- ◆ 장 소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현지 사무소
- ◆ 면 담 자 : 박종근 무역관장 외 3명
- ◆ 주요내용 : 박종근 무역관장으로 부터 ‘아르헨티나 경제동향’과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의 전반적인 상황, 지역별 특색, 한·아르헨티나 교역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한국기업의 유망한 진출분야와 아르헨티나와 자원외교 및 무역 다각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한·아르헨티나 양국간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현황

- ◆ 사무소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누에보데 홀리오 거리
- ◆ 관할지역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 조 직 : 관장(4급 상당), 과장, 직원 8명
- ◆ 주요사업

1) 시장개척사업

○ 세일즈 지원

출장자를 위해 상담주선, 호텔예약, 바이어리스트, 통역알선 등의 활동을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

○ 조사대행

국내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지 무역관관련 정보를 유료로 조사, 해당업체에 제공

- 조사항목 : 수요 · 수출 · 수입 · 생산 · 경쟁, 가격동향, 수입관리 제도, 해외투자환경 조사, 국제입찰정보조사, 해외업체 신용조사 등
- 개별 방한 및 구매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및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업체에 대한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 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본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 주선, 현지 방문활동 지원
- 정부조달정보 수집

주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국제입찰정보중 아국업체의 참여가 유망한 정보 입수

2) 조사사업

-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특정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 및 시장분석, 마케팅 확대방안을 조사분석하고 현지 소비자, 수입상들의 기호 변화, 최근 수입흐름 등 적시 파악하여 대외전파

3) 중소 · 벤처기업 지사화사업 추진

- 무역관과 우리기업의 지사역할 수행을 통해 수출계약까지 지원하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 -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4개 해외무역관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박종근 관장의 현황브리핑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교민 기업(AMESUD) 방문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5. 1. 19.(월) 15:00
- ◆ 장 소 :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마르틴 시 소재 현지공장
- ◆ 면 담 자 : 김홍렬 사장
- ◆ 주요내용 : 연간생산 60만톤, 연매출 400억원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5위의 원단기업 ‘아메수드사’를 방문하여 아르헨티나 섬유업계를 선도하고 아르헨티나 섬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인 ‘김홍렬’ 사장의 어려움을 듣고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해외에서의 기업운영 애로사항 등에 관해 청취하고 회사 연구, 생산라인을 둘러본 후 특히, 섬유의 고장 대구지역 섬유업계와 원단 수출 및 상호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 및 향후 한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측면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아메수드(Textil Amesud. S.A)사 현황

- ◆ 주 소 : Juarez 5800, San Martin, Provincia Buenos Aires
 -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차로 40~50분 거리에 있는 산마르틴 시에 소재
- ◆ 직 원 수 : 310명
- ◆ 연 매 출 : 약 420억원
- ◆ 사업내용
 - 1991년 설립한 Amesud S.A사는 설립 초기 염색 분야에 특화하였으나, 점차 사업범위를 확대발전시켜 현재 직조, 염색, 날염 등 섬유업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동사는 대지 3헥타아르 및 면적 20,000 m²의 대규모 공장에 최신식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섬유회사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연간 150만불 규모의 염료 및 기계류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의 수출지역 다변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대부분 의류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3만명 규모의 在아르헨티나 교포사회에 양질의 원단을 공급함으로써, 교포들의 사업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아메수드는 현재 아르헨티나 원단업계 5위로, 연간 생산량이 60만 톤에 이르는 큰 기업이다. 이곳의 원단은 세계적인 스포츠 웨어 브랜드를 비롯해 유명 아동복, 디자이너의 패션 쇼 작품 등에 사용되며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김홍렬 대표는 2006년-2009년간 在아르헨티나 한인 원단협회 회장 및 2010년 在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 하는 등 교포 상공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메수드사 방문 김홍렬 대표와 환담 및 회사견학

▶ 관광인프라 체험

■ 레폴레따 묘지



레폴레따묘지는 1882년에 만들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다. 묘지의 화려한 조각상과 장식물은 이곳을 묘지라는 느낌을 전혀 들지 않게 한다.

시내 한가운데 위화감 들지않는 묘지의 어울림이 특이하다

■ 대통령궁(카사 로사다)



카사 로사다란 '분홍빛의 저택'을 뜻하는데 정말 건물 외벽이 온통 분홍색이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실제 집무실로 쓰이고 있다. 영화'에비타'에서 발코니에서 손을 흔든 장면으로 유명하다.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장소

■ 탱고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리레스 라 보카 지역에 온 이민자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을 술과 춤으로 달랬다. 이 춤이 바로 탱고다.

3 브라질(Brazil)



■ 일반개황

- 위 치 : 남미대륙 중동부, 대서양 연안 국가지도
- 면 적 : 8,511,965평방 Km (한반도의 43배)
- 기 후 : 열대, 아열대, 온대
- 인 구 : 20,262만명(2014년)
- 수 도 : 브라질리아 (Brasília)
- 행정구역 : 1개 연방특구 + 26개 주, 4,974개 시
- 언 어 : 포르투갈어
- 정 치 : 연방공화국(대통령제), 상·하양원제
- 종족구성 : 백인 55%, 혼혈 38%, 흑인 6%, 인디안 1%
- 중 교 : 카톨릭(80%), 기독교(17%), 영혼교(1.26%)
- 화 폐 : 레알(Real / 1레알=427원)

■ 기 후

브라질의 기후는 북부의 열대 기후와 남회귀선이 지나는 상파울루 이남의 온대 기후로 나뉜다. 또한 열대 기후도 지역 특색에 따라 적도 기후, 열대, 스텝, 고지대성 열대, 그리고 아열대 기후로 나뉜다. 기온은 열대지역에서 연중 25도 이상 유지되며 기온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온대 지방인 히우그란지두술, 산타카타리나 지방에는 겨울철(6 - 8월)에 눈이 내리기도 한다.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연중 1,000에서 1,500mm이며 대부분 여름철인 9월부터 4월까지 내린다. 아마존 지역은 연중 2,000mm이상이며 벨렘 지역은 3,000mm까지 된다.

■ 지 리

남미대륙중앙부에 위치한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절반 정도인 47%를 차지하는 세계 5위의 총면적을 자랑하는 대국이다.

브라질이란 이름은 이 나라 특산물로 적색염료로 사용했던 “파우 브라질”에서 따온 말이다.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남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우루과이, 남서로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서로는 페루, 북서로는 콜롬비아, 북으로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과 프랑스령 기아나에 면하고 있다.

■ 산업 및 자원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다.

세계 최대의 농작물 생산국으로서 전체 수출의 30%를 농작물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커피 산업은 19세기 이후 브라질 경제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다이아몬드, 철광석, 크롬과 같은 광물이 많고 석유와 천연가스도 풍부하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밀림인 아마존이 위치해 있어 연간 60여 만 톤의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 대국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제조업, 금융업, 커피, 사탕수수, 콩, 바나나, 파파야, 오렌지, 코코아, 콩, 꿀, 만 다린오렌지, 아보카도 등의 생산은 세계 최대이고, 농작물로 옥수수, 쌀, 밀 등 주요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무역업에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민 총생산(GNP)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3번째 보크사이트를 매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철광석, 주석, 금, 망간 등 광물자원을 내장하고 있는 혜택 받은 나라이다.

■ 경 제

브라질은 농업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국가이다.

1950년대 이후 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브라질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6% 가량이 농업에 종사할만큼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소작농이어서 비교적 생산성이 낮다.

공업의 발달과 함께 브라질 경제는 흑자와 적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혼란을 겪었다.

199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175%에 달했고 1998년에는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번 경제 위기를 겪으며 세계 최고의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천연자원 개발과 제조업의 발달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국내 총생산이 약 31% 정도나 증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도 성장이 기대되어 브릭스에 포함되기도 했다.

브라질은 철강업이 산업의 30% 가량을 차지하며, 제조업 기술은 남아메리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 종 교

국민의 약 80%가 로마 가톨릭 신자이고 세계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건너오게 된 흑인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토착 종교가 광범위하게 융합되어 있다.

국교는 없으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관리사무소 및 아구아수 국립공원 방문

□ 이타이푸댐 수력발전소 방문

◆ Itaipu 수력발전소 현황

- 파라나 강에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공동으로 건설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
- 20개의 터빈에서 각 각 시간당 700mw, 총14.000mw를 생산
- 파라과이의 79%, 브라질의 14%의 전력을 공급
-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수력 발전소 중에서 발전용량이 가장 큰 댐
- 건설과정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약 2,200여 개의 계측관리용 센서를 콘크리트 내부, 기초 내부, 어스댐(Earth Fill Dam)의 내부 등에 설치한 뒤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건설에 소요된 재료 역시 엄청난 규모로 철강재의 양은 에펠탑을 380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고, 콘크리트 양은 영불 해협을 유로 터널에 소요된 양의 15배에 달한다.
- 브라질과 파라과이 양국은 각각 10개씩의 터빈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데 파국은 그 중 1개의 터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는 브라질에 임차해 주고 연간 US\$1억 5천 6백만불의 로열티를 징수 하고 있다.

◆ 연 혁

- 1966. 6. 22일 브라질과 파라과이 양국이 'Ata do Iguaçu' 회담에서 Itaipu댐 건설에 합의 서명.
- 1970년 미국과 이탈리아의 건설 회사가 Itaipu댐 건설에 입찰.
- 1975년 본격적인 건설 시작(지류 변경 작업)

- 1980년 인공 저수지 건설 시작
- 1982년 인공 저수지 완공
- 1984년 5월 5일 첫 번째 터빈 발전 시작
- 1991년 4월 9일 18번째 터빈 발전 시작
- 2007년 2개 터빈 추가 발전 시작

※ 참 고

이따이프담은 미국 토목학회(ASCE)가 선정한 20세기 7대 불가사의에 구조물에도 들어갈 정도로 어마 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 7대 불가사의의 구조물에는 미국의 Golden Gate, 파나마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영불해협을 유로 터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캐나다의 Canadian National Tower, 네덜란드의 북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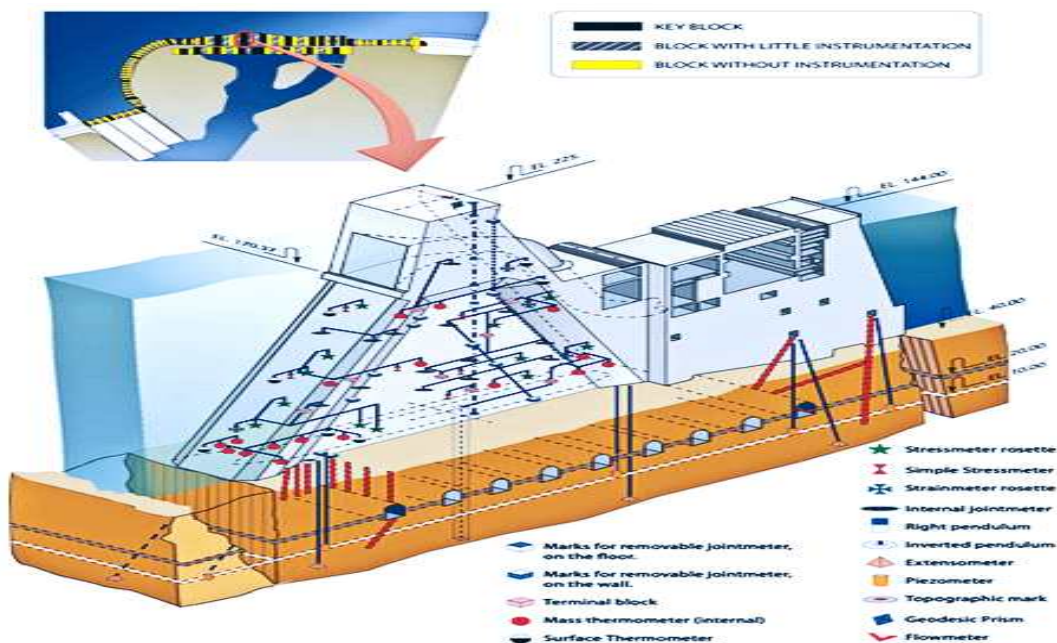
- 주요 댐 길이 1,406m, 높이 196m, 폭 273m, 댐 총 길이 8km, 저수지 면적 1.350km², 저수량 2,010억m³.

◆ 시 사 점

- 이따이프담 수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한 수몰 지역의 피해 가구에 피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이따이프담 수력 발전소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당시 피해 가구에 로열티 라는 명목으로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보상 방법에 비해 무척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 또한 이따이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연구소 운영 등을 통하여 주변 농업계와 어업계, 그밖의 여러 계통에 걸쳐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책 개발사업 시행시에 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따이프 수력 발전소는 세계 최대 발전량을 자랑하는 대규모 댐이지만 우수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으면서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이따이프 발전소가 얼마나 노력 하는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따이프 수력발전소 건설과정 및 운영현황 청취

□ 이구아수 국립공원과 리오 데 자네이루

◆ 이구아수 국립공원(Iguacu National Park) 관리 실태

- 브라질의 이구아수 국립공원(Iguacu National Park)은 총 연장 길이가 2,7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한 이구아수 폭포(Iguazu Falls)를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Iguazu) 국립공원과 공유하고 있다. 이곳은 큰수달(giant otter), 큰개미핥기(giant anteater)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물보라 덕분에 식물들이 무성하다.
- 그러나 이과수 국립공원에서는 사람의 왕래가 있는 통로 이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립공원 내에는 브라질에는 없던 대나무 군락이 새로이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기존 생태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었으나 현지 관리인은 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문제의식이나 방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 하지만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객을 체크하는데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꽃이나 풀을 가져가거나 꺾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으며, 동물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전용 사파리 이층버스만을 타고 국립공원 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은 벤치마킹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국립공원을 관광수지 흑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서 반드시 기념품 가게를 거치게 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들이다.

이구아수의 자원가치

이구아수 폭포의 하류 지역은 아열대 우림 지역으로 나무고사리(tress fern), 목본성 덩굴식물 (liana), 착생식물(epiphytes) 등이 풍부하다. 폭포의 상류 지역은 주로 다습한 아열대 낙엽수림으로 덮여 있다. 이 낙엽수림에는 파라나소나무(Parana Pine 또는 brazilian pine, Araucaria angustifolia), 아사이야자(Assai palm, Euterpe edulis), 야생 코코넛야자(wild coconut palm, Cocos romanzoffiana), 임부야(imbuya, Phoebe porosa) 나무 등이 자란다.

이러한 식물 군락은 이구아수 국립공원 북동쪽 지역 작은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열대 우림은 이구아수 국립공원 총 면적의 약 90%를 차지한다.

◆ 리오 데 자네이루

가. 리오 데 자네이루 개요

인구 600만의 리오 데 자네이루는 아마존 보호와 내륙 개방을 목적으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 브라질의 수도였다. 그리고 세계 3대 미향으로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1950년대에 이미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마라칸나 스타디움, 국립박물관과 수목원,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곤돌라를 타고 바라본 팡데아 수카르등 모든 경치는 관광객들을 들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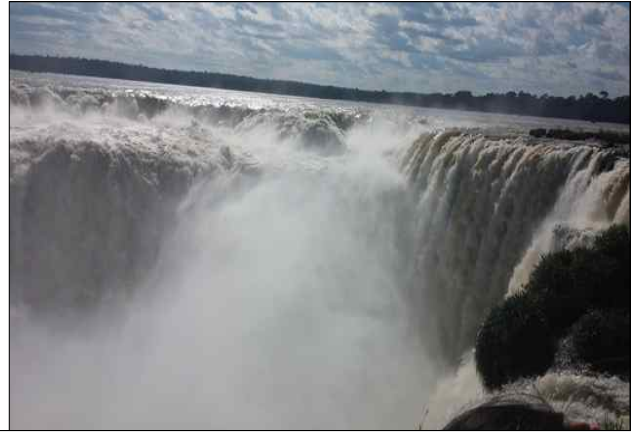
리오에는 또한 삼바 축제의 중심지이고 삼바 축제가 열리는 거리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삼바춤은 아프리카 노예, 포르투갈, 인디오들의 춤들이 혼합된 다양성의 상징이다. 삼바는 축구와 같이 한편으로는 브라질의 정열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 리오 데 자네이루 수목보호 공원 관리 실태

리오에는 수목이 생장하기 좋은 사계절 온난 기후와 적당한 강수량으로 최적의 수목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현지인들이 생태계 순환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수목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광활한 산림을 국가의 인위적 통제 하에 두기는 불가능하므로 수목연구원, 국립공원 및 공원지역, 도시근교의 수목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이민 역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다양한 식물류와 식물에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이 유입되었으나 오랜 역사 속에서 기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산림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인간의 개발이며 개발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가장 효율적인 산림보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목원 및 조성된 공원을 조사한 결과 나무를 심은 후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관리하기보다는 인위적인 조치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보편적인 관리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연중 따듯한 날씨와 적당한 강수량에 기인한 관리방법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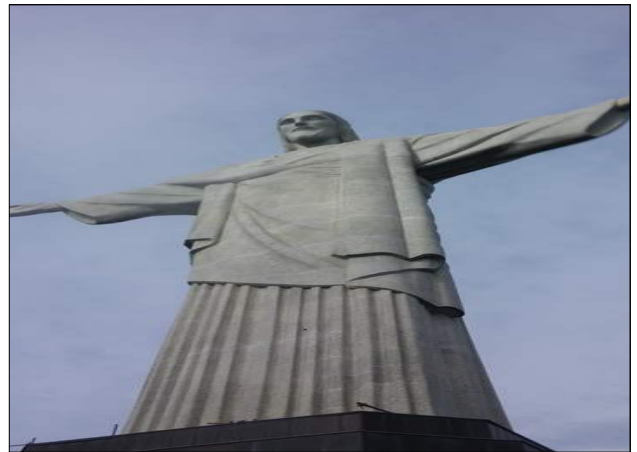
다. 공원관리정책에의 제언

온대기후인 브라질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삼림과 수목생태계 환경은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한 대림과 온대림이 혼재되어 있어 수목관리 방법에 있어서 브라질의 수목보호 방식이나 개념은 우리나라에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수목관리 방식이나 기술이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 주로 온대 활엽수 중심의 수목으로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 맞는 관리 방식으로 우리와는 상이하므로 향후 브라질 환경 및 수목관련자들과의 삼림정책에 관한 교환 프로그램 운영하여 상호 활용 가능한 학술,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친 이구아수 폭포와 광활한 삼림 자원

▶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산업 체험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의 코르도바주 예수상 높이는 39.6 미터에 무게는 700 톤이며 예수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티주카 삼림 국립공원 내에 있는 코르코바주 산의 정상(고도 700 미터)에 세워져 있으며, 리우데자네이루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다. 이 조각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상징인 동시에,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연간 약 180만명의 브라질 내외 관광객들이 이 곳을 방문한다. 현재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또한 슈가로프산의 산봉우리 2개를 이용한 케이블카 전망대 관광지는 정말 멋진 광경을 보여준다. 무려 100년전부터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행하였다 하니 놀라운 일이다.